

지구촌 재난 현장에 자비를 심다

아름다운동행, 5년간 해외구호사업 일단락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해외 긴급구호 사업이 11월 26일을 기점으로 일단락을 맺는다.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중국·칠레·파키스탄·일본 등지에서 이어져 온 재난 지원이 필리핀 타나완 국립 고등학교 완공과 함께 잠시 휴식에 접어드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긴급구호봉사단을 사건 발생 이틀만에 파견하고 8천가구에 구호키트를 전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이어 필리핀에 파견된 아라우 부대와 협약을 맺고 380여일간 재건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6월 필리핀 팔로시 파웁 초등학교 완공을 시작으로 6개 초·고교를 완공했다. 태풍으로 날아간 지붕 강판 교체 및 파손 벽체 보수부터 급수 및 오배수 시설 보수, 전기 배선 작업, 놀이기구 세트 설치까지 완료한 것이다.

타나완 국립고 완공식에서 자승 스님은 “한국 전쟁 당시 여기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달려와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며 “한국의 많은 사찰과 불교 신자들이 하이옌의 피해 복구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던 것은 필리핀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나완 고등학교 학생들이 훌륭하게 자라 나와 이웃,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여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팔라히오 텍스 주니어 타나완 시장도 “타나완을 위해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조계종과 아라우부대의 노력으로 학교 건물이 복구됐다”며 “여러분이 보내 준 지원과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난 이전의 삶 복구

이처럼 1차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복구까지 도와준 곳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다.

2010년 발생한 강진으로 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50만명의 이재민이 생긴 아이티에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재건과 교육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는 2011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9월 완공됐다. 아이



아름다운동행이 11월 26일 타나완 국립고등학교 완공을 끝으로 380일간의 필리핀 재건사업을 완료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현지 아라우 부대 장병들과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이 완공된 학교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0년 아이티강진 피해지원서 시작

일본·태국 등 9개국에 약 20억원 지원

재난 복구지원 및 재건사업 주력

유네스코 협력 통해 단체 공신력 얻어

타는 2008년 재단이 생긴 후 처음으로 해외 구호 사업을 전개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재단은 중국·칠레·일본 지진 피해 지원, 파키스탄·인도·태국 수해 복구, 아프리카 모기장 지원 등을 해왔다.

그동안 아름다운동행이 해외에 지원한 금액은 총 19억6천만원. 2011년 일본 지진 및 쓰나미 지원으로 6억7천만원, 아이티 지진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학교재건에 5억3천만원이 쓰였다. 필리핀에는 4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5년간의 해외구호 사업이 잠시 끝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아름다운동행은 당분간 아프리카 학

교 건립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네트워크 강화 성과...과제는?

지난 5년간 아름다운동행이 해외구호사업에 나선으로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것은 성과로 꼽힌다. 특히 아이티의 경우 유네스코와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재단의 공신력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외 사업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해외전문 구호단체가 아니기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노하우와 정보 부족 역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각 국가의 정관계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재단은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이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건립사업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의 구호사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 불교의 해외구호사업 참여는 타 종교단체에 비해 한참 늦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교계에는 해외사업 전문가가 부족하다. 재원규모도 2천억원에 달하는 월드비전 등에 비하면 동행이 해외사업에 쓰는 비율은 20억원 대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불자들 사이에서 기부문화가 자리잡히지 않은 것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재단 개인후원 대다수가 불자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 및 사찰 기부 비율은 전체 긴급구호 조성기금의 72%에 해당한다. 아직 불교계에 모금을 기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 박성주 모금팀장은 “나눔과 보시가 다르지 않는데 아직 불자들 사이에서 모금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10월 8일을 기부데이로 정하고 나눔을 독려한 것처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법을 꾸준히 전개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필리핀 학생들이 완공된 학교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긴급구호 활동실적

국가	사업내역(전달기금)	사업기간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5억3천만원)	2010~2014
중국	지진 구호기금 지원(6천2백만원)	2010
칠레	지진 구호기금 지원(30만원)	2010
파키스탄	수해 구호기금 지원(5천9백만원)	2010
인도	수해 구호기금 지원(1천1백만원)	2011
일본	쓰나미 재난 지원(6억7천만원)	2011
태국	수해 구호기금 지원(1억원)	2011
아프리카	모기장 지원(5천만원)	2011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4억8천만원)	2013~2014

“긴급재해 대응 위한 예비비 조성 나설 것”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 스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해·재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발생원인과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승 스님은 “재난에 대한 피해는 이에 대비할 역량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그 피해가 훨씬 크고, 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빈곤층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 이웃들이 안정되고 존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아름다운동행이 긴급재해·재난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한 법, 아름다운동행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재해·재난 발생으로 고통 받는 세계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현재 긴급구호자금으로 편성해 둔 4억원을 더 늘려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긴급재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 구호활동 결과는 매우 뒤늦게 나타난다. 지속적인 후원이 지구촌 이웃들이 안정되고 존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긴급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이웃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원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이 투명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게끔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의료봉사



2011년 일본대지진시 위문방문



2011년 태국 홍수피해 의료지원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구호활동



2014년 아이티 헤르메 바야드 고교 완공식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주최

“통일부장관 초청”

제2회 전국통일기원대법회 및 문화행사

일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30

장소 |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심산리 226-1번지)

■ 주요행사 : 통일부장관 특강, 가야금 앙상블 담현 가야금 합주, 트로트신동 장송호 축하공연

■ 주 관 : (사)세종평화통일포럼

■ 주 최 : (사)대한불교선교종

■ 특별후원 : (사)한국다문화희망협회

■ 후 원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북도



(사)대한불교선교종 041)566-2277 | 세종평화통일포럼 044)863-1259